|  |  |  |  |
| --- | --- | --- | --- |
| **<자연계글쓰기> 제 3기 독후감** | | | |
| **분반** | **1반** | **학부** | **물리학과** |
| **담당 교수** | **권미란** | **학번** | **20211260** |
| **담당 조교** | **고나경** | **이름** | **이지현** |
| **읽기자료(텍스트)** | **진정일 - 화학: 지구촌 구할 녹색 해결사**  **임성진 - 인간과 자연 중심의 따뜻한 에너지 기술** | | |
| **독후감 제목** | **지구를 위한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필요성** | | |
| **글의 개요** | **서론:**  **- 두 글의 내용 요약**    **본론:**  **-화학기술의 부정적인 이미지, 문제점과 '녹색화학'의 정의**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문제점과 '따뜻한 기술'의 정의**  **결론:**  **녹색화학과 따뜻한 기술의 필요성** | | |

※독후감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 마지막에 글자수 기입

제시된 두 글은 모두 이윤이 목적이 된 기술이 가져온 오늘날 기술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진정일 작가의 글에서 말하는 녹색화학이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지금까지의 화학기술과 달리 안전과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의 화학기술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화학기술은 각종 화학무기, 화학공장에서의 안전사고,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한 환경 파괴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화학, 에너지, 보건, 농업 문제들의 해결은 화학기술이 필수적이며 화학계에서의 책임보호운동이 확산되어 많은 화학업체가 환경보호에 앞서고 있다. 이제 화학은 더이상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니다.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화학, 즉 녹색화학은 화학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며 지구를 건강하게 보존할 것이다.

임성진 작가는 에너지 기술의 문제점을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에너지는 경제에서 그저 이윤을 위한 도구으로 여겨져 올바른 생산과 소비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이윤을 위해 대량생산되는 에너지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일단 대량생산 기술을 가진 특정 에너지 공급자가 장악하며 개인과 기업은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저개발국 사람들은 기술의 사용에서 소외되며 에너지 사용의 빈부격차가 심회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대량생산하는 것이 소비를 가속화하여 자연의 순환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이윤의 대상이 된 에너지는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자연은 고려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따뜻한 기술은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기술 체제가 아닌 사람과 자연을 고려하는 친화적인 소규모 에너지 체제를 말한다. 지역에 특성에 따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따뜻한 기술은 대량생산된 에너지와는 달리 소외된 에너지 계층이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된다. 또한 유지와 관리가 쉬우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인다. 요약하자면 복지와 지속가능한 혁신이 접목된 기술로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이다. 따뜻한 기술을을 적용한 대표적인 기기의 예로 태양열 조리기와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꼽을 수 있다. 이 기술은 단지 기기의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 지역 전체가 자발적으로 따뜻한 기술을 추진한다면 일본 오가와마치, 독일 프라이암트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인간의 기술에 몸살을 앓는 지구에게 더 이상의 무분별한 에너지 기술의 개발은 위험하다. 문명이라는 명분으로 지구를 위기로 몰아세운 기술이 앞으로는 자연과 인류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적 성장이 아닌 지구를 위한 진정한 녹색 화학, 따뜻한 기술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1430자)